

2015

제12권 제10호 (통권 제228호)

10

POSITION PAPER 2015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I. 서론
- II. 일반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태
- III. 전문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태
- IV.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I. 서론	1
II. 일반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태	3
III. 전문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태	11
IV.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9

■ 작 성 자 이강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운영실

TEL: 02-3460-0450, e-mail: kangjoo@kedi.re.kr

허은정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운영실

TEL: 02-3460-0379, e-mail: ejhur@kedi.re.kr

이상무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연구기획실

TEL: 02-3460-0667, e-mail: noproblem@kedi.re.kr

이 포지션페이퍼는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수시과제로 수행되었던 “대학의 진로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I. 서론

- 올바른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진로교육법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진로교육은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였음. OECD에서는 진로정보·진로지도·진로상담서비스 개입이 초기교육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국가시스템이 될 것이라 보았음(이지연, 2003)
- 고등교육과 관련된 진로교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의 실시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대학생의 진로교과목의 수강은 자기이해를 향상시키고,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윤영란, 2008; 임수희, 2007; 한미희, 2011; 허은영, 2009; 황매향 외, 2007)
- 또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학생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에서 진로교육은 5위를 차지하였고, 중학교 교육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에서는 여전히 5위를 차지했으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3%에서 5.2%로 2.9%p 증가함. 고등학교 교육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에서 진로교육은 인성교육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음.(김정민 외, 2014) 이러한 경향성은 대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이렇듯 진로교육법의 제정 이외에도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졸업 후에 바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에 진로교육법이 발효됨에 따라 그 동안 초·중등교육에만 머물러

있던 진로교육의 대상이 고등교육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진미석 외, 2015)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서우석, 2015) 그만큼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 이렇듯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현황 파악과 이를 분석하는 연구 활동은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음.(진미석 외, 2010)
- 전체 대학의 진로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는 진미석 외(2010), 김승보 외(2012)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음. 대학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세부 주제로 들어가면 주요대학의 진로교육 기구에 관한 연구(김호원 외, 2012)나 진로관련 교과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임수희, 2007), 진로교육에 관한 학생들과 대학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현주, 2001; 이현주, 2002) 등 대학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음. 그러나 이들 연구로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 이지연 외(2003)과 정지은 외(2013)에 따르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연구에 비해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에 관해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진로교육 관련 자료에 대해서 특징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은 총 298개 대학(일반대학 163개교, 전문대학 135개교)의 자체평가보고서 중 2012년~2014년 진로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함. 관련 평가지표는 4.2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지표와 4.4 취·창업 지원 지표임
 - 대학 명칭은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대학명을 코드화하여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대학에서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현장의 실태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거의 모든 대학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일반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태

1. 진로지도 담당 지원조직

-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 지원 조직을 ①학생들의 심리 및 진로상담을 담당하는 학생생활상담소 또는 학생생활연구소, ②취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역량개발을 돕는 인력개발원 또는 경력개발원, ③ 취업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때로 진로 상담을 담당하기도 하는 취업지원처(센터), ④학생들의 창업 교육을 담당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창업지원(보육, 교육)센터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학생생활상담소, 취업지원처/센터, 창업지원센터/창업교육센터의 세 축으로 나누어진 유형임.
- 유형 B는 인력개발원 산하의 취업지원센터나 취업지원팀에서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유형 D는 인력개발원 산하에 인력개발팀과 취업지원팀이 구분되어서 별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임. 이 경우는 매우 드물(4.9%). 인력개발이 취업지원이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유형 E는 중앙집권형으로 ‘창의인재육성처’, ‘역량개발지원처’의 이름 하에 진로 및 심리상담, 취업 지원, 창업지원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 유형 F의 경우는 학생복지처, 학생생활 지원센터에서 진로 및 취업 지원 담당
- 유형 J, K와 같이 학생생활상담소가 따로 없는 경우는 종합인력개발원에서 학생 심리 상담 업무를 맡음

〈표 1〉 진로지도 지원 조직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취업지원처,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본부	창업지원처, 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보육)센터	대학수	비율
유형 A	O	X	O	O	60	36.8%
유형 B	O	O		O	53	32.5%
유형 C	O	X		O	6	3.6%
유형 D	O	O	O	O	8	4.9%
유형 E		O			13	7.9%
유형 F	O	X	X	O	3	1.8%
유형 G	O	O		X	4	2.4%
유형 H	O	X	O	X	8	4.8%
유형 I	O	X	X	X	1	0.6%
유형 J	X	O		O	5	3.0%
유형 K	X	X	O	O	1	0.6%
유형 L	X	X	O	X	1	0.6%
계					163	

가. 기타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조직 현황

- 여성가족부에서 2003년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 실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젠더의식강화, 여대생커리어개발, 리더십, 여성CEO멘토링, 여성임파워먼트 등의 프로그램 실시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창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외 산학협력센터에서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담당함
- 대학청년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타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관련 조직들: 청년작가아카데미, 공공인재육성센터, 청년기업가센

터, 산학인력양성센터, 글로벌마케터양성센터, 글로벌사회공헌단, 국가고시지원센터, 전문역량인
증원, 성인학습지원센터

〈표 2〉 기타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조직 현황

지원조직	대학수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28
현장실습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29
공학교육혁신센터	12
글로벌 인재개발, 해외취업지원팀, 해외창업지원팀	10
대학청년고용센터	13
리더십센터	3
기타	19

나. 지원조직의 전문 인력 비율 현황

- 취업교육에 있어서 담당자의 전문성은 이미 언급되어 왔음. 그러나 학교직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비전공자의 업무담당 등이 지적되어 있음. 또한 정규직 여부와 업무에 대한 교육 등도 전문성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이제경 & 선혜연, 2011)
- 2014년 기준의 재학생 수 대비 학생생활상담소,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각각의 전문 인력의 비율을 계산함
 - 학생생활상담소의 경우 상담관련 석사 학위이상을 카운트 함. 객원상담원, 계약직 상담원등도 포함. 석사과정의 인턴상담사는 제외함
 -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의 경우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취업지원의 경우 직업상담사, 취업지도사, 진로지도사, 커리어 코치, 학습 및 진로상담 전문가 등이 있음. 창업지원의 경우 창업지도사, 창업전문매니저, 창업보육매니저, 기술가치평가사 등이 있음

① 상담전문가 비율

- 재학생 수 대비 전문가의 비율은 1:1000~3000이 가장 많음(38.6%). 그러나 대학 내에서 취업지원 담당 조직에 비해서 학생상담소가 생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1:500이하인 학교들과 1:500~1000 인 학교를 합치면 그 수가 39개교임(23.9%). 학생 상담 전문가는 학

교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 상담전문가 비율

	대학 수	재학생수 1,000명이하	재학생수 1,000~10,000명	재학생수 10,000명이상
1:500 미만	17	7	10	—
1:500~1000	22	—	17	5
1:1000~3000	63	—	34	29
1:3000~5000	31	—	20	11
1:5000이상	20	—	4	16
없음, 알 수 없음	10	—	9	1
계	163			

② 취업전문가 비율

- 취업전문가의 비율은 1:1000~3000이 가장 많음(48.4%). 상담전문가에 비해 그 수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담전문가에 비하면 취업전문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표 4〉 취업전문가 비율

	대학 수	재학생수 1,000명이하	재학생수 1,000~10,000명	재학생수 10,000명이상
1:1000 미만	20	1	15	5
1:1000~3000	79	—	39	40
1:3000~5000	27	—	16	11
1:5000이상	20	—	5	15
없음, 알 수 없음	16	6	4	6
계	163			

③ 창업전문가 비율

- 창업 전문가는 상담전문가나 취업전문가에 비해 없는 학교들도 많음. 재학생수 대비 비율은 1: 1000~300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3000~5000 정도임

〈표 5〉 창업전문가 비율

	대학 수	재학생수 1,000명이하	재학생수 1,000~10,000명	재학생수 10,000명이상
1:1000미만	13	—	7	6
1:1000~3000	52	—	33	19
1:3000~5000	32	—	21	11
1:5000이상	20	—	6	14
없음, 알수 없음	46	7	27	12
계	163			

2. 책임지도교수제 및 온라인 이력관리시스템

- 대학 중 대부분(87.6%)이 평생지도교수제, 사제동행, 책임지도교수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책임지도교수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대부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함.
 - 책임지도교수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교수에게 학생상담관련 교육이나 자료집, 매뉴얼을 제공하는 학교는 36.8% 수준임
 - 온라인 이력관리시스템은 학생의 심리상담 결과, 지도교수상담 결과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관리하는 시스템, 경력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음.
 - 유형 B의 일부 대학은 상시진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상시진로지도시스템은 주 1회이상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스스로 진로선택, 취업준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수들에게는 학생취업지도에 필요한 진로지도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유형 C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책임지도교수제와 온라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집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유형 F에 속한 한 대학교 경우는 일부 전공교수에게 단기상담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상담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6〉 책임지도교수제 및 온라인 이력관리시스템 유무

	책임지도교수제, 평생지도교수제	교수대상 자료집/ 교육/매뉴얼 제공	온라인이력관리, 포트폴리오시스템	대학수	비율
유형 A	O	O	O	40	24.5%
유형 B	O	O	X	18	11.0%

	책임지도교수제, 평생지도교수제	교수대상 자료집/ 교육/매뉴얼 제공	온라인이력관리, 포트폴리오시스템	대학수	비율
유형 C	O	X	O	45	27.6%
유형 D	O	X	X	40	24.5%
유형 E	X	X	O	7	4.2%
유형 F	X	O	O	1	0.6%
유형 G	X	O	X	1	0.6%
유형 H	X	X	X	11	6.7%
계				163	

3. 진로 프로그램 및 학년별/단계별 차별화된 접근모형

- 신입생, 저학년 대상 진로프로그램은 전체 신입생대상 MBTI 검사 실시, 설문조사 실시 등은 제외함. 신입생 세미나, 저학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캠프, 신입생 대상 Holland 적성검사를 실시함
- 진로관련 정규 교과목을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의 35.2% 수준임. “대학생활과 진로설계”와 같은 과목을 운영. U001대의 꿈-설계 상담제(‘꿈-설계 상담’을 전공 선택으로 교과목 편성, 학점은 0.5학점, P/F로 운영, 졸업까지 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함).
- 학년별/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 모형은 진로형, 역량형 등이 있음
 - 진로형(1학년은 진로계획, 2학년은 진로설정, 3학년은 진로준비, 4학년은 진로선택)
 - 역량형(1학년은 핵심교양, 2학년은 진로탐색 및 소양교육, 3학년은 직무교육, 4학년은 취업역량교육)
- 유형 H(전부 다 없는 유형) 유형 D(신입생대상 진로프로그램만 있는 유형), 유형 C(신입생 대상 프로그램과 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모형을 가진 유형) 순으로 나타났음

〈표 7〉 신입생 대상 진로 프로그램 및 학년별/단계별 차별화된 접근모형 유무

	신입생, 저학년 대상 진로 프로그램	진로 관련 교과목 운영	학년별/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 모형	대학수	비율
유형 A	O	O	O	18	11.0%
유형 B	O	O	X	15	9.2%

	신입생, 저학년 대상 진로 프로그램	진로 관련 교과목 운영	학년별/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 모형	대학수	비율
유형 C	O	X	O	23	14.1%
유형 D	O	X	X	27	16.5%
유형 E	X	X	O	10	6.1%
유형 F	X	O	O	8	4.9%
유형 G	X	O	X	16	9.8%
유형 H	X	X	X	46	28.2%
계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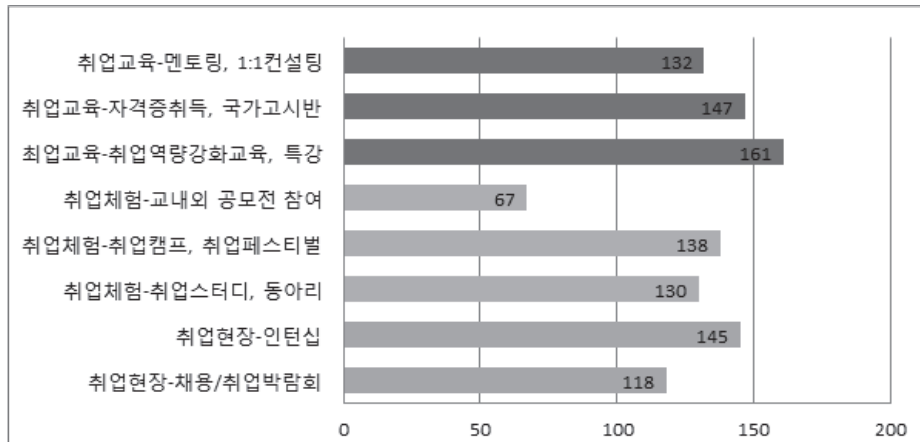
4.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 취·창업 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분류 매트릭스를 아래 <표 9>와 같이 설정하였음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대학마다 프로그램의 이름이 같더라도 세부 프로그램은 다른 경우도 많음
 -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열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전체적인 현황 및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함
 - 취업교육프로그램(취업교과목, 취업역량강화, 자격증 취득 등), 학생들의 취업체험 및 참여 위주 프로그램(동아리활동, 각종 공모전 등), 실제 취업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취업박람회, 인턴십 등)으로 구분하였음

<표 9> 취·창업 분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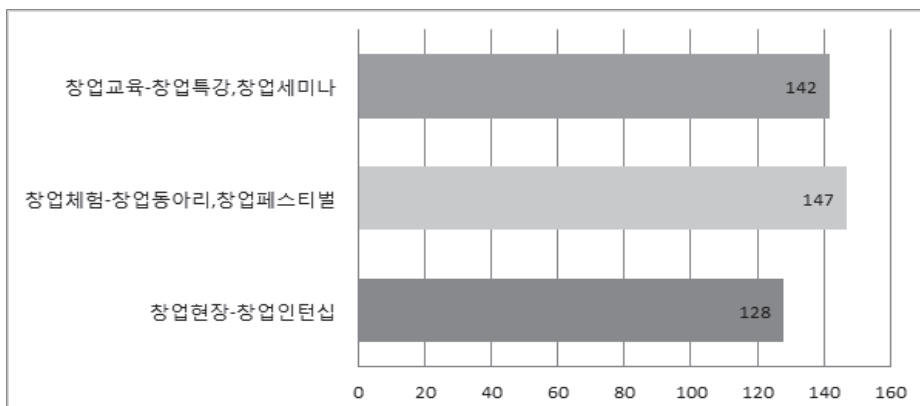
	취업교육	취업체험	취업현장
취업	• 취업아카데미 • 취업특강 • 취업교과목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자격증취득강좌 • 국가고시반 • 멘토링 및 1:1 컨설팅	• 취업동아리/스터디그룹 • 취업캠프, 잡페스티벌 • 교내외 공모전 참가 • 모의 직무적성검사	• 채용박람회, 취업박람회 • 인턴십
	창업교육	창업체험	창업실행
창업	• 창업교과목 • 창업특강 • 창업세미나	• 창업경진대회 • 창업동아리 • 창업 아이디어공모전	• 창업인턴십

- [그림 1]에 따르면 많은 대학들이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음. 실제 기업에 나가서 직업생활을 경험하는 인턴십이나 채용박람회, 고용박람회 등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취업동아리나 교내·외 공모전 참여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그림 1]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N=163)

-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 프로그램에 비해 실시 횟수나 참여 인원의 측면에서 미흡함. 그러나 LINC 사업단이나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인 창업지원교육의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2]에서 보듯이, 창업교육과 창업체험, 창업현장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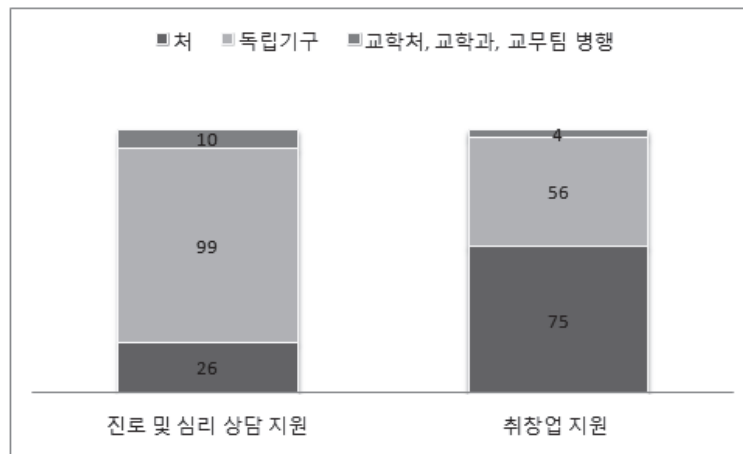


[그림 2] 창업지원 프로그램 현황(N=163)

Ⅲ. 전문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태

1. 진로지도 담당 지원 조직

-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은 진로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조직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원화됨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은 대학에 따라 명칭은 다양하나 주로 학생처, 학생상담실, 학생상담소,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취·창업 지원은 취업처,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담당함
 - 그러나 진로 및 심리 상담과 취·창업은 조직에 완전히 양분되지 않고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135개 전문대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관련 담당 조직의 직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조직의 경우, 독립 기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가장 많음(99개교, 73%). 처 내에 조직이 편제된 경우는 26개교(19.3%)로 나타남. 한편 교학처나 교무처와 같은 곳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수에 해당함(10개교, 7.4%).
 - 취·창업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은 처에 편제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75개교, 55.6%). 독립기구는 56개교(41.5%)로 그 다음 순서임. 교학처나 교무처와 같은 곳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취·창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4개교(2.97%)로 역시 매우 적은 수임



[그림 3] 진로교육 관련 담당조직의 직제별 분포(N=135)

가. ‘처’ 단위 편제

- 진로교육 담당 조직이 처 단위로 편제된 경우 부서장이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 사안을 다루는 교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 공식적인 취·창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학 주요 정책에 취업 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김승보 외, 2012: 149). 한편 취·창업 등 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처가 아니라, 학생 생활 관련한 종합적인 부서(예: 학생개발지원처)의 취업지원팀도 이 유형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이 경우 진로 및 취업 교육 담당 조직으로서의 전문화 및 특성화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
- 여러 조직이 연계되어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과 취·창업 지원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양상을 보임. 중복 기재된 경우 중점적으로 기술된 유형으로 분석함

<예시>

- 2개의 ‘처’가 함께 운영하기도 함(학생지원처와 산학취업처가 학생상담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
-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처의 하위 팀/과에서 취·창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도 함(입학취업처의 취업지원팀과 산학협력처의 창업교육센터).
- 학생취업처를 중심으로 상담센터, 취업지원센터 3개 담당 조직에서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관련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하기도 함

나. 독립기구로 편제

- 부설·병설 기구로 편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함.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다른 부서와의 협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김승보 외, 2012: 149).
- 이 유형에서도 진로 관련 지원 업무 뿐 아니라 취업 업무가 혼재되는 경우가 발견됨
 - <예시> C072대학, 종합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며, 이 곳에서는 학생상담실, 잡카페, 취업정보 지원센터 등이 포함됨

다. 교학처 내의 업무로 편제

- 다른 행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이 이루어짐. 다른 유형에 비해 진로 및 취·창업 지원에 대한 입지, 역할,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교학처 학생과, 교학처 교학팀, 교학처 교무과, 교학처 취업지원실 등에서 진로교육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과 취·창업 지원 모두 이러한 유형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2. 책임 지도교수제 및 온라인 이력 관리 시스템

가. 책임 지도교수제 유무

- 책임지도교수제는 진로 및 심리 상담, 그리고 취·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전담 지도교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의미함. 대부분의 대학(135개 대학 중 126개교, 93.3%)에서 책임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책임지도교수전담제, 평생지도교수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제시됨.
- 한편 취업멘토교수, 취업전담지도교수, 취업중점교수 등 취·창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고 기술한 대학은 17.3%(135개 대학 중 23개교)로 나타남
 - 앞서 기술된 책임지도교수제도에서 진로 및 심리 상담 뿐 아니라 취·창업 관련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는지 보고서 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음. 따라서 이상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에 비해 취·창업 전담 교수제 운영이 미흡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기술한 대학은 135개 중 79개 대학(58.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그룹웨어 운영, 학생역량강화시스템, 학생통합시스템, 학생이력관리시스템, 학생종합관리시스템, 학생포트폴리오관리시스템, 조기경고체계 시스템, 종합이력관리시스템 등
 - 이상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심리 검사 결과, 상담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다음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교수 학생간의 그룹별 멘토링 등 학기별 이력을 관리하며, 진로 및 자아성장의 기록을 관리하는 일을 함

3. 학년별 또는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모형

- 전문대의 진로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학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접근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학년별 또는 단계별로 차별화된 모형을 보고서 상에 제시한 경우는 135개 대학 중 43개교(31.9%)에 해당함
 - 대학에 따라서 개별 학생의 진로 관련 성장 수준에 중점을 두거나, 직무 역량 설정 및 개발에 중점을 두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있음

4. 진로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 진로교육은 진로·심리 상담 지원과 취·창업 지원에 관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여기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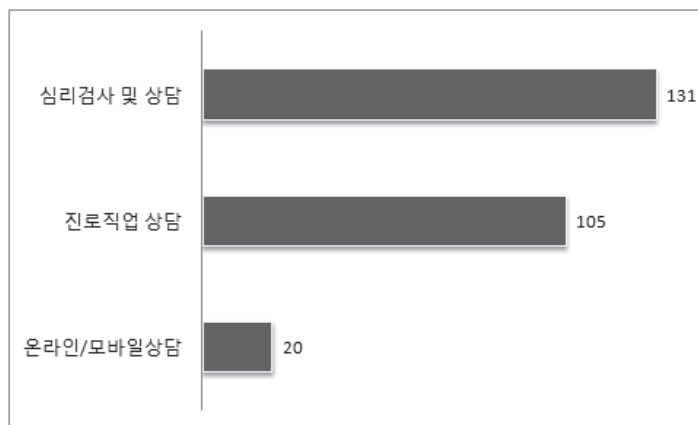
가.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은 크게 전담 지도교수의 상담, 진로 및 심리 상담을 위한 기본 심리 검사,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제공됨, 대학에 따라서는 이 3가지 차원

중 일부만 지원되기도 함

● 심리 및 진로 상담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심리검사(예: MBTI, 학습유형 검사, 인·적성 검사 등)와 상담(예: 미술치료, 음악치료, 대인 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등)은 135개 대학 중 131개교(97%)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진로와 직업을 주제로 한 상담은 105개교(77.8%)로 나타남.
- 이러한 상담 활동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135개 대학 중 20개교로 14.8%였음



[그림 4] 진로 및 심리 상담 실시 현황 (N=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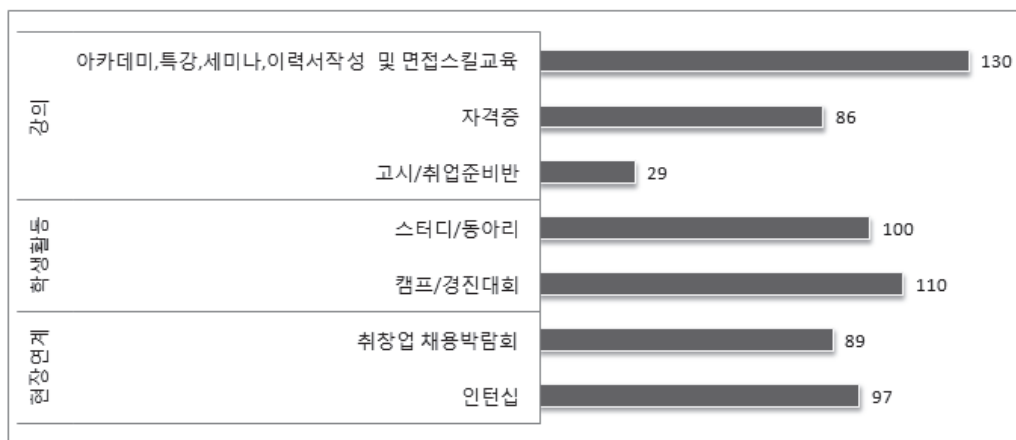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은 심리 검사와 상담으로 나뉨.

- 심리 검사는 기질 및 적성 검사, 성격유형(MBTI) 검사, 학습유형 검사, 인성 검사, 대학생활 적응도 검사 등 학생 개별 특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대한 해석 상담이 제공됨
 - 상담은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이 이루어짐. 집단 상담은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같은 형태를 띠기도 함.
- 상담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주제로 구분됨
- 유학생, 장애학생, 중도탈락 학생, 만학도,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휴·복학생, 학습부진학생, 성인학습자, 졸업자 등 학생 특성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이 제시됨.

- 의사소통 향상, 자살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에 관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 멘토링은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임. 교수, 상담전문가, 학생 등 멘토의 주체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학과 멘토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프로그램, 멘토링 인생로드맵, 1:1 멘토, 사제동행 멘토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실시됨
 - 멘토링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학기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 취·창업 지원은 크게 강의, 학생 참여 활동, 현장 연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학에 따라서는 이 3개 유형 중 일부만 제공하기도 하며, 물론 해당 범주 이외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함
- 취·창업 관련 강의, 학생 참여, 현장 연계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5] 취·창업 지원 실시 현황(N=135)

- ‘강의’는 아카데미, 특강, 세미나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스킬 교육과 자격증 교육, 그리고 각종 고시 및 기업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반 등이 있음

- 이 중 취·창업에 대한 단발성 특강,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135개 대학 중 130개교, 96.3%). 이는 나머지 프로그램 유형들을 다 합해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전국적으로 취·창업에 대한 단기적 교육이 지속적이고 심화된 교육보다 더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줌.
- 한편 자격증 준비반은 86개교(63.7%)이고 고시 및 취업 준비반은 29개교(21.5%)로 나타남.
- 예시: 취업아카데미, 취업특강, 대기업 스터디, 대기업 인적성 검사 대비반, 언론고시반토익집중과정, 자격증취득프로그램(dp: 미술심리상담가) 등
- ‘학생 활동’은 취·창업 캠프나 경진대회, 그리고 취·창업 스터디 및 동아리처럼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함. 캠프 및 경진대회는 135개 대학 중 110개교(81.5%), 스터디 및 동아리 지원은 100개교(74.1%)임
 - 예시: 취업캠프, 맞춤형 취업 프로젝트, 작품전시회,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캡스톤 경진대회/발표회, 디자인 페스티벌, 여성커리어개발 공모전 등
- ‘현장 연계’ 활동은 취·창업 채용 박람회나 인턴십 제도와 같이 학생들이 기업 현장과 연계되는 기회를 대학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장 연계 활동은 학생 활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시행됨.
 - 취·창업 채용 박람회는 135개 대학 중 89개교(65.9%), 인턴십 제도는 97개교(71.9%)임.
 - 인턴십 제도는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부터, 단순 견학 및 체험 활동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임. 국내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또는 실습체험 외에도 해외 기업으로 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남
 - 예시: 산업체 현장 견학, 창업기업현장실습, 취업희망기업 체험학습, 해외현장체험,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취업연수사업 등
- 이상 제시한 사례 이외에도 취업 컨설팅, 여대생 대상 취·창업 지원, 취업멘토링, 취업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과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도를 위한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함
 - 여대생을 주요 대상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여성 커리어개발 공모전, 여대생 취업 프로그램, 여학생 직무교육, 비즈니스우먼네트워킹(여성동문 취업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여자대학에서 주로 실시되며, 반대로 여성 비율이 낮은 학

과(예: 공업계열)에서 소수의 여학생들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제공하기도 함

- 취업멘토링은 지속적이기보다는 특강 형식의 단기적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행됨(예: 미용멘토와의 만남)

● 한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의 계열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보임

● **(보건 계열)** 보건 계열 대학은 주로 간호학과가 중심임. 학생의 대부분이 졸업 후 보건의료기관 취업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며, 대학 역시 해당 분야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함

- 보건의료 분야 취업 경쟁력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예: 간호능력 증진 프로그램, 상처간호증진 프로그램, 다양한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병원 견학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환자/노인 체험 실습 프로그램 등)
- 기업 입사 준비반 또는 고시 준비반은 거의 없음
- 창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됨

● **(예술 계열)** 방송·예술계열 대학은 예술 극단 운영, 아트 페스티벌, 오디션 등 예술 활동에 특화된 학생 참여 활동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임

- 예술 계열 특성 상 타 계열에 비해 프리랜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창업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짐. 1인 창조기업, 창업장학금, 창작/창업 경진대회 등이 있음

<예시>

- C031대학은 일반적인 취·창업 지원이 아닌 “예술창작이 곧 취·창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취·창업 활동을 지원함

- 개인창작 활동이 곧 취업인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살려서 대학에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가 창작 지원 프로젝트
- 공연제작 프로젝트: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통한 신예술 창조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아티스트 육성 프로젝트
- 글로벌 Residency 컴퍼니-교수 공동 영상 프로덕션: 영상 계열 영화 전공 교수의 글로벌 산학협력 영화 제작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
- 창업 동아리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여 전공 교육이 글로벌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이공계)** 과학기술대학의 특성 상 학생 참여 활동과 박람회, 기업체 견학, 인턴십 등 현장 연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짐. 특히 우수 아이템 특허 출원 지원,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등이 발견됨
- 대학 전체가 단일 산업(예: 자동차, 농·산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및 제도가 대부분 해당 산업의 성격에 맞추어 특화되어 있으며, 인턴십과 같은 현장 연계 활동이 발달됨

<예시>

- C012대학은 지게차 운용 교육, 엑셀 실무교육, 해당 산업 대표자 및 조합장 초청 강연을 제공하고, 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함
- C043대학은 수입자동차 협회 MOU 체결, 자동차 클러스터 취업 MOU 체결, ○○(자동차 브랜드명) Apprentice Training 과정에 연계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수입자동차 취업동아리 운영, 발명 전시회 견학, 기술이전,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함

IV.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 주요 시사점

- 일반대학의 취·창업지원 조직은 심리상담지원, 진로지원, 창업지원 등 주로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대학에 따라서는 취업 및 창업 담당 전문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책임지도교수제와 온라인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은 대부분의 대학이 갖추고 있음. 단, 진로지도에 대한 대학별/단계별 차별적인 접근 모형의 설정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취·창업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기구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이러한 대학의 조직을 앞으로 각 대학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임
- 전체 일반대학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그 특징을 유형화하기 힘들 정도로 각 대학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국 일반대학은 각 대학의 상황과 학생들의 수요 조사에 근거

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취업과 창업 관련 특강, 세미나(취업교육), 동아리 참여(취업체험), 박람회, 인턴십(취업 현장 연계) 등이 학생의 수요 및 진로지도 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함
- 전체 전문대학의 취·창업지원 조직과 프로그램은 취업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계열별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강조되기도 함
 -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목표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짐. 따라서 취업을 위한 강의, 학생 활동, 현장 연계 등이 활성화됨
 - 보건, 예술, 이공계 등 계열별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차별적으로 강조되었고, 대학 전체가 단일 산업으로 특화된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문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학과 구성이나 학교 프로그램이 취업지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 판단됨.

2. 일반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일반대학의 취업지원 방안
 - 현재까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1회성 행사, 체험행사, 진로관련 교과목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현재까지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논리나 체계성이 약해 보임.
 -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내용과 분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조직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일반대학의 경우 계열별로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지도에 있어서 계열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들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소위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불리는 학과들의 학생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 일반대학의 창업지원 방안

- 취업지도에 비해서 창업지도는 인력이나 기구 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편임.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창업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의 고급인력들이 창업을 통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통해 미래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많이 탄생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됨

3. 전문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전문대학 취업지원 방안

- 전문대학은 취업을 위한 학교라는 점을 학교 홍보에도 적극 반영하고, 학교의 기구와 프로그램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취업 지원을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이들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수, 학생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적인 비전이 아닌 실질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해당 대학만이 가진 고유의 인재상을 수립하고 진로 교육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여야 함. 이는 체계적인 진로 지원이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긍심을 북돋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임

● 전문대학 창업지원 방안

- 전문대학에서 창업지원 기구나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판단됨. 이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창업지원 기구나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전문대학 학과 중에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학과의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지원 제도(장학금 지원, 학점 이수 등)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를 통해 이들 학생들이 향후 강하고 내실 있는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4. 정책 방향

- 위에서 언급된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함. 특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만한 기구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현이 불가능함. 따라서 각 대학은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2010).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취업지원 실태조사.
- 김승보·박태준·신선미·임진주(2012). 고등교육의 진로지도 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민·양승실·이선호·김일혁·이슬아(20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4), 한국교육개발원.
- 김호원·이종구(2012). 기업의 실무형 인력공채를 위한 대학의 취업지원인프라 분석에 관한 연구 - 대학특성과 재학생 인적특성에 따른 취업지원만족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19(2), 189-211.
- 서우석(2015). 「진로교육법」, 진로교육의 새 지평을 연다, The HRD Review 18(4), 2-7.
- 윤영란(2008).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진로교과목 수업과 진로집단상담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경·선헤연(2011).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연구센터.
- 이지연(2003). 한국 진로교육 전반에 관한 OECD 견해, 진로교육연구 16(1), 101-122.
- 이지연·이진남(2003). “진로교육연구”의 연구동향, 진로교육연구 16(2), 1-24.
- 이현주(2001). 대학교육단계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 연구: 대학생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0(1), 219-247.
- 이현주(2002). 대학교육단계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 연구: 대학 교직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13, 227-255.
- 임수희(2007). 대학생 진로교육과정 운영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은·주홍석·정철영(2013). 진로교육연구 학술지의 연구 동향, 진로교육연구 26(1), 1-20.
- 진미석(2015).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The HRD Review 18(4), 8-27.
- 진미석·정혜령·이수열(2010). 국내 4년제 대학의 진로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3(1), 135-152.
- 한미희(2011).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 개발 및 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은영(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직업교육연구 28(4), 77-94.

황매향·손만익·강혜영(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71-91.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s Work, Paris.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발행	2015년 12월
발행인	윤종혁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06762) 서울시 서초구 바우뚝로1길 35(우면동)
전화	(02)3460-0114
팩스	(02)3460-0121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아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02-2272-0307)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